

골롬반 선교

2019년 여름호 vol.111



진도에서 일어난 일

뜨겁고, 좋다

진요한 신부는 지금도 달립니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골롬반 선교

2019년 여름호 vol.111

표지 중국의 한양성당. 골롬반회 창설자 갈빈 주교가 1936년에 설립했다.

03 마음을 여는 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 김종근 도밍고 신부

중국 이야기

04 뜨겁고, 좋다 | 서경희 스테파노 신부

08 하느님 안에서 맺은 관계는 | 권태문 사도 요한 신부

10 평신도선교사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 이수빈 마틸다 선교사

12 선교사의 창

쥐띠 부인의 행복한 외출 | 오록 케빈 신부

14 그림 묵상

세례성사를 살아가기 | 안재선 제이스 신부

16 페루 이야기

선교, 하느님의 선교 | 구화 루까노 신부

18 보고 싶은 선교사

진요한 신부는 지금도 달립니다 | 편집실

20 나의 성소 이야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 | 조지 호가티 신부

22 다시 읽는 선교잡지

진도에서 일어난 일 | 원요한 신부, 민수왕 신부

24 함께하는 여정

그리운 정 레오 신부님 | 김일동 루카 후원회원

26 후원회

28 골롬반소식



편집실 Tel. 02-927-2705
E-mail kor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E-mail korseoul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Tel. 02-926-1217
Fax. 02-926-0551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
Peregrinatio pro Christo

발행일 2019년 6월 1일 | 발행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발행인 임영준 에이몬 신부 | 편집장 김종근 도밍고 신부
편집위원 오기백 다니엘 신부, 최두레 유스티나, 노혜인 안나 선교사, 김소영 세실리아
디자인 아이디퍼런스 | 인쇄 동진인쇄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김종근 도밍고 신부 · 편집장



안녕하세요?

어느덧 여름이 찾아와 골롬반 본부의 정원도 매일 매일 푸르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생동하는 만물이 우리 안에 희망과 젊음을 복돋아 줍니다.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선교를 시작한 어떤 나라나 지역에서 그곳 출신의 성직자가 탄생함으로써 선교의 한 단계가 완성되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이승훈 베드로의 세례(1784년, 중국 북경)에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탄생(1845년, 중국 상해)까지 약 60년의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중국 선교를 위하여 시작한 골롬반회에서 올해 초, 드디어 중국인 골롬반 사제가 탄생하였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회를 축복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서품식이었습니다.

1920년, 창립자 갈빈 주교를 포함한 골롬반회 첫 선교사 16명이 중국에 도착하였고, 그들은 중국 공산화 직후인 1952년까지 그곳에서 활동하며 전쟁, 대형 홍수, 전염병, 가난 등으로 곤란을 겪었던 중국인들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온갖 어려운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선교사들이 그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워 100년 만에 열매를 얻은 것이지요.

“온 세상에 나아가서 내 이름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 복음 선포의 사명은 어떤 어려움에도 거침이 없고, 어떤 두려움에도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의 모든 선교사는 우리 회의 주보 성 골롬반이 보여준 것처럼 고향을 떠나 온 세계 여러 나라에 살면서 다양한 민족들 안에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연대하며 정의의 위해 일하면서 선교 사명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선교의 동반자 후원회원 여러분, 하느님 사랑 안에서 이 복된 선교 여정을 밝고 힘차게 걸어갑시다. ✠



뜨겁고, 좋다

서경희 스테파노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14년 3월 사제서품 후 그해 말 대만으로 파견되어 신주교구 따후성당에서 사목하였으며, 2018년부터 중국에서 살고 있다.

1월 23일 저녁, 나는 피터 부제의 사제서품식이 거행될 화북지방의 한 도시에 도착하였다. 피터 부제는 신학교 동창들과 식사하고 있다가 나를 찾으러 나왔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피터 부제의 상기된 얼굴에는 서품을 앞둔 이들에게서 보여지는 흥분과 긴장이 교차하고 있었다. 피터는 식당으로 나를 안내했다. 원탁에 둘러앉은 부제의 동창 중엔 먼저 사제가 된 친구들도 있었고, 가정을 꾸린 친구들도 있었다. 나의 도착과 함께 다시 시작된 만찬은 학창시절의 이야기로 더욱 활기 넘쳤다. 술잔이 몇 차례 더 돌고서야 만찬은 마무리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골롬반회 첫 중국인 사제의 탄생을 기다리는 나의 가슴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이곳 공기는 무척이나 상쾌했다. 주교좌 성당 주변을 산책하다 발견한 만듯가게에서 아침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피터의 출신 본당 신부를 우연히 만났다. 그는 길림성의 시골 본당에서부터 피터 부제의 아버지와 부제의 사촌 여동생 부부와 함께 1,000km 넘는 길을 운전해서 어젯밤에 도착했다고 했다.

저녁 식사 시간엔 피터가 부제 실습했던 본당의 신부 두 명과 다섯 명의 신자들도 장시간 운전 끝에 도착했다. 새 사제를 축하하기 위해 힘든 여정을 무릅쓰고



피터 신부가 신학생 시절 필리핀에서 실습할 때 찍은 사진. 양들의 냄새가 났 목자의 삶을 살겠다는 그의 다짐을 담아 사제서품식 초대장에 새겼다.

모인 이들에게 참으로 고마웠고, 그 기쁨을 감출 길 없어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내일 있을 서품식을 위한 축배를 함께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서품식 전례 연습이 한창인 성당으로 향했다. 성가대는 얼마나 준비를 해왔는지 참으로 아름다운 선율의 성가가 들려왔다. 긴장된 모습이 역력한 피터 부제와 네 명의 부제들의 뒷모습에서 5년 전 서품 전날의 내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었다.

25일 서품식 당일, 새벽 5시 30분에 서품식 장소인 주교좌 성당에 도착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아 길은 어둡이 깔려 있었고, 새벽바람은 너무 매서워 불이 다 얼어붙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른 시간에도 성당을 가득 메운 신자들과 입당을 준비하는 사제들의 모습에 추위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나는 피터 부제의 서품식을 준비하며 딱 한 가지 투덜거린 것이 있었는데, 그



필자와 새 사제 피터 신부



아버지 고향에서 미사드린 후 가족, 친지들과 함께



건 너무 이른 시각에 서품식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새벽 6시에 시작하는 서품식, 상상이라도 해 본 적이 있었는가. 여명이 밝아 오는 새 아침에 받아들을 주님께 봉헌하는 이곳 전통의 의미를 서품식이 끝나고 태양이 밝게 떠오른 파란 하늘 아래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드디어 입당을 알리는 종탑의 종소리에 맞춰 행렬과 함께 거룩한 서품식이 시작되었다. 말씀의 전례가 끝나고 서품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잠시나마 이방인의 눈으로 이곳 전례를 관찰하였다. 너무나 많은 선입견과 오해 때문이었을까? 이곳 역시 보편교회의 한 지체임을 잠시 잊었던 탓일까? 서품 예식이 어딘가 조금은 다를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고, 어느 서품식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예식이 진행될수록 보편교회에 일치하고자 하는 중국 교회의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안수가 끝나고 수품 대상자들의 부모가 제의를 들

고 제단으로 나왔다. 그리고 주교를 도와 새 사제에게 제의를 입혀주었다. 주님의 제단에 아들을 봉헌하기 전 제의의 옷매무새를 매만지는 부모의 모습은 마치 에덴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이브에게 하느님께서 옷을 입혀 떠나보냈던 창세기의 한 장면을 연상시켰다. 이제 새 사제 피터는 주교와 함께 미사를 봉헌하기 위하여 주님 제단에 올라갔다. 중국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맺은 또 하나의 열매를 보는 순간이었다. 여명과 함께 시작한 서품미사는 동녘에서 떠오른 해가 대지를 비추며 모든 이를 깨우는 아침이 되어서 끝이 났다.

서품미사 후, 새 사제 피터는 자신이 다녔던 신학교 성당에서 200여 명의 신자들과 동창 신부들과 함께 첫미사를 봉헌하였다. 강론 중에 피터 신부는 창설자 갈빈 주교가 100여 년 전 중국으로 떠나올 때,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읽어 주면서, 자신의 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피터 신부의 결의에 찬 모습에 감동한 신자들은 눈물을 보였다.

▼ 피터 신부가 학창시절을 보낸 신학교에서 그의 첫미사를 봉헌했다.





피터 신부가 아버지 고향에서 드린 첫미사

서품 다음 날 아침은 무척이나 분주하게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피터 신부 아버지의 고향에서 미사를 봉헌하기 위하여 서둘러 출발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펼쳐진 화북 평야의 광활한 대지를 지나 도착한 아버지의 고향은 황토색으로 물든 아주 전형적인 시골이었고, 마을 한가운데 성당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산간벽지에 성당이 있고, 교우촌이 형성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성체조배를 하러 성당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의문은 곧 사라졌다. 미사 시간보다 일찍 성당에 도착한 신자들은 무릎을 꿇은 채 목주기도를 바치고 있었고, 종탑의 종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지니 사방에서 삼삼오오 신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어린이들의 목소리는 장엄미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피터 신부의 아버

지는 당신의 고향에서 아들 신부가 주례하는 미사 내내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이 당신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특히 아들 피터 신부에게 잘 이어졌구나!'라고 생각했다. 영성체 후에 어린이들의 성가 소리가 성당을 넘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나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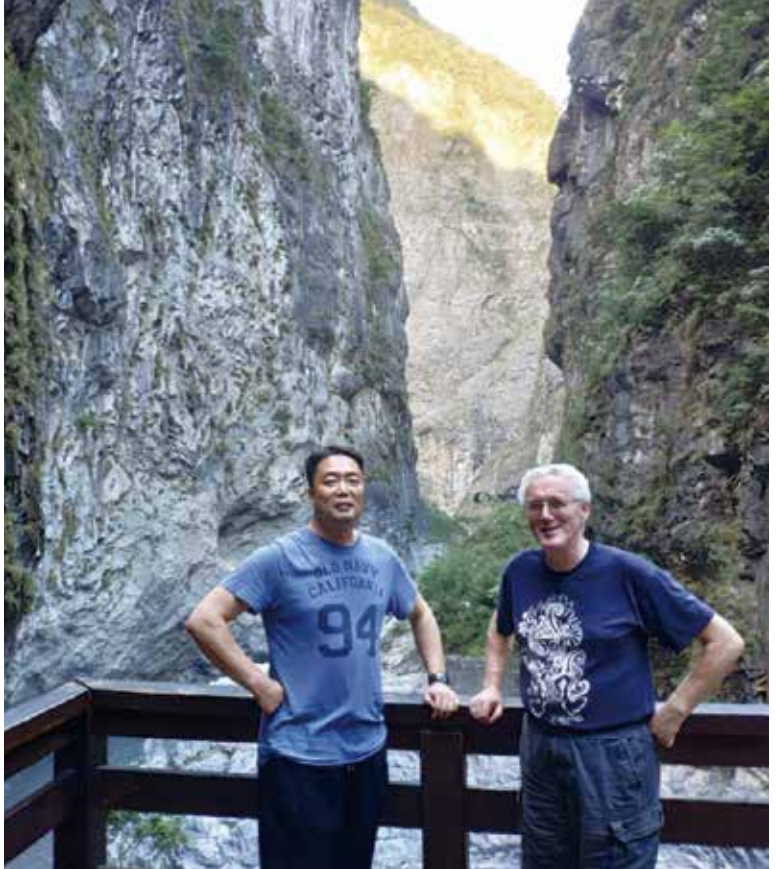
같은 골롬반회원으로서 피터 신부의 서품식을 준비하고 참여했던 지난 나흘 동안 무척 기뻐다. 또한, 이 시간에 만난 많은 이의 환대를 잊지 못할 것이다. 성당과 마을에 울려 퍼진 어린이들의 성가 소리에, 잔칫상을 뒤로 한 채 집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은 더욱 더 뜨거워졌고, 참으로 좋았다. ✠

하느님 안에서 맺은 관계는

권태문 사도 요한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10년 사제서품, 2013년까지 대만에서 선교했다. 미국 포담대학교에서 영성신학을 전공한 후, 3년간 중국에서 영성 강의와 피정 지도 등을 했다. 2019년부터는 필리핀에서 영성의 해(수련 과정)를 보내는 신학생들과 함께 살고 있다.

아이를 안았을 때
이 아이는 자기 부모를 이미
용서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두 눈은 고통이나 분노에
휩싸인 눈이 아니라,
참으로 깨끗한 순수와 사랑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야말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
아닐까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바치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권태문 신부와 총장 팀 멀로이 신부

저는 지난 3년간 중국에서 현지 신부와 수도자들의 피정을 지도하였습니다. 중국에서 했던 마지막 피정 지도 때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도시엔 열한 명의 수녀님들이 일반 주택에 서로 흩어져 살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된 사목은 장애가 있는 고아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아기였을 때 길에 버려졌는데 어느 신부님이 발견하여 여기 수녀님께 부탁하여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13살 다운증후군 여자아이는 생후 8개월에 버려졌습니다. 몹시 추웠던 겨울날, 겉옷만 입혀진 채 바깥에 오랜 시간 방치되어 아이의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얼굴은 동상에 걸려 회색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지금도 겨울이 되면 손과 발이 붓고 살이 터서 그 사이로 피가 나고, 여름엔 살갗이 계속 벗겨져 날마다 소독을 해야만 합니다. 피정 지도를 하는 동안 아이의 존재는 저를 계속 힘들게 하였고, 지금까지도 고통받는 아이를 보며 저는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버린 부모의 잘못을 넘어서, 장애를 이유로 하느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서 존중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우리 사회 전체의 죄 말입니다.

아이는 제가 좀 친숙해졌는지, 이름을 부르면 웃으며 달려와 안겼습니



필자가 자주 방문했던 중국 어느 시골 마을의 성당



피정 지도 중에 만났던 13살 아이의 손. 생후 8개월, 추운 겨울에 유기되었을 때 입은 동상 후유증으로 살갗이 벗겨지는 고통을 받고 있다.

다. 아이를 안았을 때 이 아이는 자기 부모를 이미 용서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두 눈은 고통이나 분노에 휩싸인 눈이 아니라, 참으로 깨끗한 순수와 사랑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닐까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바치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아이의 상처와 순수한 모습은 우리 인간이 지닌 추한 악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고,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랑, 희생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는 제게 최고의 피정 지도자였습니다.

피정 장소가 수녀님들의 숙소이고, 피정 중에도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피정을 위하여 수녀님들께 침묵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이 빠졌습니다. 두 분 수녀님은 강의 때 필기도 안 하고 허공을 쳐다보거나 성경을 만지작거리기만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두 분은 문맹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분은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알 수 없는 말을 되풀이하곤 했습니다. 그곳 수녀님 대부분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어릴 때부터 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수도생활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좀처럼 깊어지지 못하고, 주변만 맴도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것입니다. 영적 동반을 하면서 그들에게서 받은 느낌은 어두움, 고단함, 동료 간 질투였습니다. 저는 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출구 없는 미로를 걷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피정자들이 감사의 손편지를 써 주기도 하고, 강의나 영성 면담이 좋았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며 표현해 주었는데, 이곳에서는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피정이 끝나고 수녀님들께서 정성스레 차려주신 점심을 끝으로 그분들과 작별했습니다. 제 감정은 공허했고, 마무리가 허탈하다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신앙 체험을 얻지 못한 수녀님들의 무표정한 얼굴이 맴돌아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그곳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3주쯤 지났을까, 묵상 중에 갑자기 수녀님들이 제 마음에 보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하면서 아파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제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와 그분들과의 관계는 저의 아픈 마음과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더욱더 깊어지고 있었고, 이는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관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요란하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을뿐더러, 남들에게 우쭐거리지도 않습니다. 이 관계 안에는 잔잔한 애뜻함이 있고, 서로가 깊이 연결되었기에 따뜻함이 흐릅니다. 저는 그저 침묵 속에서, 그분들 얼굴 하나하나를 그리며 기도할 뿐입니다. 제 선교 여정의 방향을 잡는 선물 같은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 10, 8)

이수빈 마틸다 선교사



“주민”들과 놀이 활동을 하는 이수빈 선교사

“대만에서 무슨 일 하는데?” 친구가 물었다.

“응, HIV/AIDS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어.”

“뭐? 뭐라고?”

나의 대답에 친구들은 당황해하며 무슨 말인지 이

해하지 못했다. 내가 여러 번 대답한 후에야 그들은 겨우 알아들었다. 친구들이 HIV나 AIDS라는 질환을 몰라서 다시 물었던 것은 아니다. 그 친구들 삶 안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기 때문인데, 사실 예전에 나 또한 그랬었다.

골롬반회 선교사로 일하면서 동료 선교사들을 통해 에이즈(HIV/AIDS) 환자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그동안 나의 삶 안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무관심’ 그 자체였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다. 대만에서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한국에서 휴가를 보낼 때 말로만 듣던 에이즈 환자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가 생겼다. 3개월 동안 그들이 있는 곳을 방문하여 그들과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짧은 여행도 함께 다녀왔다.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그들에 관한 잘못된 편견이 많이 깨진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주 만나던 에이즈 환자 청년이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런 선택을 한 청년에게 화가 났고, 그들을 편견과 무관심으로 대한 나 자신과 이 사회에 화가 났다. 이 사건은 내가 에이즈 환자에게 더 깊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센터에는 48명의 HIV/AIDS 환자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주민”이라고 부른다. 이곳 센터에는 1층과 2층의 넓은 공간에 침대가



센터에서 봉사자들과 함께 “주민”들 생일잔치를 할 때

쪽 놓여 있고 주민들은 한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한다. 주민들은 합병증 때문에 걷고 말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찾아오는 가족이나 봉사자는 극히 적다. 주민들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가족 이야기는 더욱 그렇다. 이들은 가족이 자기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한다.

외로움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민들은 유독 음식에 대한 집착이 강한 편이다. 센터에서는 기부받은 식재료로 식사를 마련하고, 많은 이가 도와주어 과일이나 빵, 과자 등 간식을 먹기도 한다. 하지만,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나 간식을 때번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나의 선택에 의해 가족과 떨어져 사느라 한국에 있는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다. 하지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가족들의 격려와 지지는 선교사 생활을 하는 데 큰 힘이 된다. 또한,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나만의 공간에서 쉴 수 있으며, 반갑게 인사 나누는 이웃도 있다.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생활 안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많

이 있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나에겐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특별하고 가지기 힘든 행복임을 알기에, 그들을 만나면서 마음 아플 때가 많다.

HIV/AIDS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환자들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나 역시도 그랬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더 많은 이들이 질병이 아닌 환자들의 아픈 마음을 바라봐 주면 좋겠다.

나는 주민들을 도울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들 옆에 있어 주고,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뿐이다. 매일 거저 받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해 하며, 우리 센터의 주민들과도 그 사랑을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이수빈 마틸다 선교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2014년 대만에 파견되어 대만 신주교구의 장애인 센터에서 활동하였고, 현재는 중증 에이즈 환자를 위한 쉼터에서 사목하고 있다.

쥐띠 부인의 행복한 외출

오록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아일랜드 출신으로 1964년 한국에 파견되었으며, 외국인 최초로 한국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경희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한국의 시와 소설을 영어로 번역하여 해외에 알리는 등 40여 년 동안 문화교류와 문화 선교의 장을 개척하였다.



늘 책과 벗하는 오록 신부

신선 마님, 용감하게 길을 나서다.

세찬 비가 쏟아지던 날, 한 여성이 택시에 탔다. 간신히 우산을 접어 올라타자 차 안에 온통 빗물이 튀었다.

“미국에서 살다 오셨나 봐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쳐다보며 묻자, 그녀는 “어떻게 알았어요? 기사님, 점쟁인가 봐요?”하고 받아쳤다.

“예, 맞아요! 내가 맞혔지요? 언제 태어나셨어요?”
“쥐띠예요.”



오록 신부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한국 문학의 뿌리들〉을 주제로 강의할 때

“아, 1960년!”

“아뇨, 1948년생이요.” 그녀는 어려 보인다는 말로 알아듣고는 기분 좋게 대답했다.

“남편은 몇 년생이신데요?”

“1944년생이요.”

“그럼 원숭이띠군요. 쥐와 원숭이라, 궁합이 그저 그러네요.”

“쥐띠와 원숭이띠는 궁합이 좋다고 하던데요.”

운전사가 다시 백미러를 보았다. “음, 사실 좋은 궁합은 아닌데, 손님 관상을 보니 남편이 행운아시네요.”

“그래요? 왜 그런가요?”

“손님이 본인의 운을 나누어 주시네요.”

“따님이 있죠? 지금 딸은 미국에 있고요, 손님은 딸과 함께 살아야 해요.”

“왜요?”

“그게 딸에게 좋습니다. 딸이 엄마의 모든 복을 가져갈 거예요. 물론 그것이 손님에게 그리 좋은 건 아니지만, 딸이 엄마의 좋은 업보를 다 가져가겠네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긴데, 손님 눈썹이 잘생겼다는 걸 알고 있죠? 관상이 아주 좋으세요. 만약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주 부자가 되었겠어요. 남편 둘에 많은 재산.”

“남편이 둘인 게 뭐가 좋아요?”

“흠, 평생을 한 사람에 얽매어서 사는 것보다는 낫

잖아요. 남편이 매일 아침 손님에게 고마워할걸요.”

“예, 그래요. 저도 남편이 저에게 고마워한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수긍했다.

그녀가 내릴 미아리에 차가 도착했고, 요금은 사천 팔백 원이 나왔다. 그녀는 기사에게 만 원을 건네며 “거스름돈은 넣어 두세요. 기사님 차를 타고 와서 좋았어요”라고 말했다. 운전사는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운전사는 능력이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서울의 여성들과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며, 요금의 두 배를 벌어들일 것이다.

그날 저녁 그녀는 분명 자기 남편에게 놀라운 택시 운전사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때 남편의 반응이 어떨지 뻔하다. 남편은 “진짜 대단한데! 당신은 택시 운전사가 해 준 기분 좋은 말을 듣고 즐기면서 온종일 시내를 다니지만, 난 혼자 집에 있다가 저녁에 당신이 돌아오면 ‘정말 고마워!’라고 말해야 할 팔자라니.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걸!” 

〈오록 신부의 선교사의 창〉은 여름호를 끝으로 1년간의 연재를 마칩니다.

한국 선교 생활 이야기를 문학적 깊이로 재미있게 풀어 주신 오록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글은 홈페이지(www.columban.or.kr) 선교잡지 게시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세례성사를 살아가기

안재선 제이슨 신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그린 그리스도교 전통 미술을 보면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는 성령이 주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성자와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 이어돈 신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세례는 워낙 공동으로 하는 예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는 군중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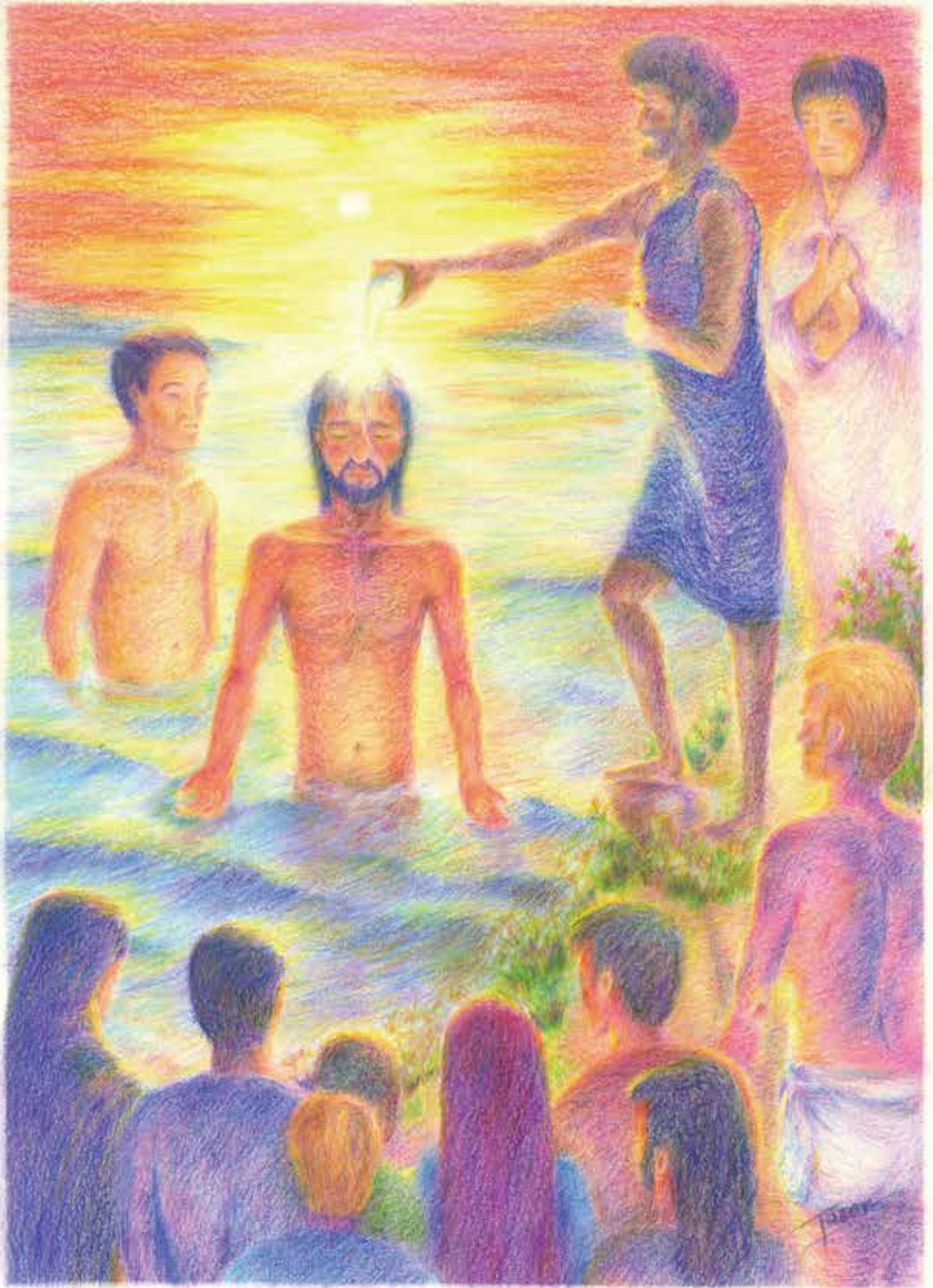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마태 28,19)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성사를 받은 이는 국가, 문화와 언어, 피부색, 학력, 지위, 성별과 성적 취향 등으로 차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관은 포용적이어서 하느님의 구원은 어느 특정한 민족이나 나라만 독점하는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영성의 가슴(The Heart of Spirituality)입니다. 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바꾸면 알몸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문화에는 어떤 때부터 지금까지도 전라(全裸)는 금기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미술 작품에도 절대 나오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과 성인들의 글을 보면, 하느님과의 친밀함에 관해 이야기할 때 알몸을 연상하게 합니다. 전라는 숨긴 것이 없는 상태 즉 겸손, 정직과 성실을 상징합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예수님과 그분 뒤에서 함께 세례를 받는 사람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세례를 받으며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느님의 용서를 겸손하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사랑을 새 옷처럼 입혀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필리핀 출신으로 2015년 1월 사제품을 받고 그해 10월 한국에 파견되었다. 제주교구 금악성당, 화북성당에서 사목했으며, 현재 평신도선교사 리더팀, 예술 사목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제이슨, 《세례를 받는 예수와 군중》, 2019년, 종이에 색연필

선교, 하느님의 선교

구화 루까노 신부

성공품반외방선교회, 2012년 사제품을 받고, 2013년 페루로 파견되었다. 2013년 리마 북부 까라바이요 교구의 대천사 본당에서 일했으며, 2015년부터 2019년 초까지 같은 교구 '선교의 성모' 본당에서 활동했다.



2019년 2월 24일 '선교의 성모' 본당에서 새 주임신부 취임 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선교의 성모 본당은 페루의 수도 리마 북쪽에 위치한 까라바이요 교구에 속한 본당으로 골롬반회가 신자분들과 20년 이상 함께 살아온 곳입니다. 그리고 이 취임미사 이후부터는 팔로티회 사제들이 본당에서 사목을 담당합니다. 이 취임미사는 단순히 골롬반회가 본당을 떠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느님의 선교'이며 사목자가 바뀔지라도 본당의 삶은 '하느님의 선교' 안에서 계속된다는 그동안의 체험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미사에서 남녀노소,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전례에 참여하였습니다. 사목자들과 신자들이 함께 살아온 '하느님의 선교' 역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본당 이름인 '선교의 성모'에 걸맞게 하느님의 선교 부르심에 계속해서 "예" 하고 응답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례였습니다. 이 공동체가 익숙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초대에 발걸음을 옮기는 장이었습니다. 미사의 주인공은 하느님이시고, 그 주인공과 함께하는 이들은 바로 신자이므로 신자분들이 새로운 사목자를 전례 안에서 열렬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골롬반회는 1990년대부터 이 지역에 와서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 결과 12개의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능동적인 평신도들이 지도자가 되어 신자분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공동체를 가꾸었으며, 성전 여러 곳과 교육관 등등 건물도 지었습니다. 골롬반회가 함께하기 전에 이 지역은 큰 농장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고, 상하수도나 전기도 없었고, 전화기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논밭 자리에 가건물을 짓고 웅기중기 모여 살면서 점점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골롬반 선교사들은 다른 본당 신자들과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주민들과 유대감을 형성하였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고 각 신자들 공동체들로 구성된 본당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당 구역에 있는 교육 센터를 중심으로 본당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하도록 도왔습니다. 본당의 각 공동체들은 복음화에 힘쓰면서, 다른 본당들도 도우며, 정의와 평화, 환경과 자연,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를 위한 활동을 골롬반회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은 '선교의 성모' 본당 신자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골롬반회와 함께했던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 '선교의 성모' 본당 새 주임신부 취임미사



필자가 사목했던 대천사 본당, '기적의 주님' 공소의 축일 때

저는 2015년에 이 본당 공동체에 와서, 영국 출신의 에드워드 오코너 신부님과 호주에서 오신 존 헤거티 신부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두 분을 돕고 신자분들을 알아가는 것에 제 삶의 일부를 함께 한 몇 년의 시간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롬반의 선교가 한 매듭을 짓고 다른 사목자들이 교우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온 것이 기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골롬반회의 선교가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세계 어디든, 어떠한 시간의 흐름 안에서도 인종이나 문화나 언어, 성별, 세대를 초월하여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몫을 택하는 '하느님의 선교' 안에 우리의 선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진요한 신부는 지금도 달립니다

편집실

달리기 시합 전, 운동화 끈을 묶으며 카메라를 향해 미소짓는 청년 진요한 신부. 그 사진 뒷면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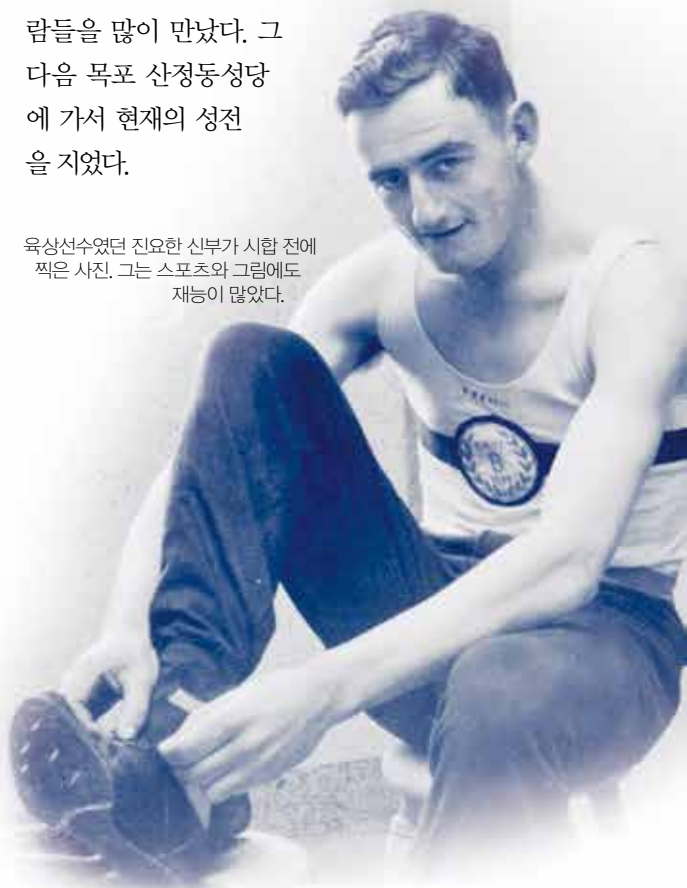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달립니다. 바로 지금!”

정말 그는 선교사로서 달릴 길을 부지런히 달렸다. 1955년에 한국으로 파견되어 전라남도, 서울, 성남에서 30여 년간 사목하며 성당과 공소 6개를 지었다. 아일랜드와 미국에 가서도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부지런히 일했다. 그곳이 어디든 부르는 곳으로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갔다. 요즘은 아일랜드 골롬반회에서 은퇴한 사제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올해 87살, 하느님을 위한 그의 달리기는 계속된다.

진요한 신부는 1958년에 흑산도성당을 세웠다. 섬에 들어갔을 때 신자 수는 599명이었는데, 2년 후 1,200명으로 늘었다. 처음에는 바다 위 배에서 지내다가 미사를 드릴 때 내려서 천막을 치고, 끝나면 다시 천막을 걷어 배에 오르는 생활을 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신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건설한 진 신부는 모든 공을 신자들에게 돌렸다. “성당 지을 때, 신자들이 바다에서 돌을 주워 머리에 이고 나르며 건축을 도왔어요. 그곳에서 정말 즐겁게 일했어요.” 더 머물면 좋았겠지만, 결핵에 걸려 2년 만에 흑산도를 떠나야 했다. 치료 후에는 목포 북교동성당에서 일했다. 7년 만에 고향에 갔다 와서 발령받은 곳은 소록도 성당. “나

병 환자들인데 무섭지 않냐고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정부에서 미사 드린 다음에 제대에서 두 손을 씻으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소록도에서 1년을 보내는 동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 다음 목포 산정동성당에 가서 현재의 성전을 지었다.

육상선수였던 진요한 신부가 시합 전에 찍은 사진. 그는 스포츠와 그림에도 재능이 많았다.





서울 창동성당 축성식을 위해 방문한 김수환 추기경과 그를 바라보는 진요한 신부(1975년)



진요한 신부는 아일랜드 콜롬반회에서 한국의 전통, 천주교 관련 물품 등을 전시하는 일도 하고 있다.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의 투구를 들고 있는 진 신부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 수가 빠르게 증가하던 1970년대 초, 진요한 신부는 서울대교구로 발령받고 상봉동과 창동에 가서 성당을 지었다. 전교회장과 함께 집집마다 다니며 3,000여 명의 신자들을 찾아 성당으로 안내했다. 그즈음 산업 공단이 들어서는 성남 지역에도 인구가 점점 증가했다. 그는 성남 단대동 성당에 가서도 일했다. 제가 “아일랜드 본부로 발령을 받고 떠날 때,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께서 ‘성당 하나 더 짓고 가십시오.’라고 하셨어요. 한국에 다시 가서 추기경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지만, 미국에서 한인 교포 사목하던 명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몸이 편찮아지

셔서 그분을 대신하기 위하여 LA에 갔지요. 임기 마치고 한국에 다시 가고 싶었지만 은퇴한 신부들을 위하여 일하라는 요청을 받고 고향 아일랜드에 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사목할 때 만났던 신자들의 이름을 여전히 기억하는 진 신부는 그들에게서 온 편지와 엽서도 간직하고 있다. 그의 방문에 한국 전통 문양 카드와 그림을 가득 붙일 만큼 한국을 좋아하는 진요한 신부에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부탁했다. “한국에서 생활했던 거 좋았습니다. 레지오 단원들, 전교회장님들, 봉사자들, 직원들, 은인들 다 고맙습니다. 한국의 신자들은 치명자들의 후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끝까지 한국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진요한 신부 주소

Rev. Brazil Sean

St. Columban's Dalgan Park, Navan,
Co. Meath, Ireland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

조지 호가티 신부

George Hogarty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호주 출신으로 1983년에 사제품을 받았다. 1980년부터 1982년까지 한국에서 선교실습을 하였고 호상철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때 배운 한국어를 여전히 잊지 않고 있으며, 칠레와 페루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15년간 칠레의 광산 지역, 사막, 마푸체 원주민 마을 등에서 활동하였고, 8년 동안 페루의 가난한 지역에서 사목하였다.



올해 초 한국지부를 방문했을 때 성 골롬반 동상 앞에서

제 나이 일곱 살 때 사제가 되고 싶은 마음을 처음 품었습니다. 마음 안에 강한 끌림이 있었던 그때의 기억은 신비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성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제가 된다면 어떤 사제로 살까, 부동산 사업가도 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3년 동안 내면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선교사제를 갈망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끌림,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저는 제 성소의 비밀을 부제서품식 후 잔치할 때, 아버지께서 손님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아마비를 앓으셨는데, 그 후

유증으로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성모님께 전구하였습니다. “우리 성모 마리아, 저희 부부에게 아이를 주시면, 만아들은 성모님을 위하여 사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첫아들인 저와 동생 일곱 명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사제가 되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항상 함께 미사 참례하고, 매일 저녁 같이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가난하여 아버지는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는데, 비록 돈은 없었지만, 우리 가족은 깊은 신앙 안에서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신학생 때 저는 선교실습을 위하여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어는 아주 재미있는 말이지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는데 과연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자신감이 뚝 떨어진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한국말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나서, 광주대교구 농성동, 광천동, 인천교구 여월동성당에 가서 본당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신자들과 신앙을 나누며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한국 음식은 매웠지만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2년 후 호주로 돌아갈 때는 몸무게가 30kg나 더 늘어 있었습니다.

사제품을 받고 한국에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남미 칠레로 파견되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당시 칠레는 군인들의 통제가 심하여 매우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칠레 가톨릭교회는 가난한 이들 편에서 서서 그들이 겪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싸웠기 때문에 정부의 미움을 샀습니다. 심지어 경찰들이 우리 사제관에 충을 쓰기도 했고, 골롬반 신부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부자들은 기득권을 움켜쥐고, 많은 기회를 누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질 수 없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가난한 이들은 하루하루 기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칠레 이웃 나라인 페루에서도 활동하였는데 스페인어

를 쓴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칠레와 페루는 문화와 풍습 등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행복하게 선교했습니다.

저는 올해 2월까지 고향 호주 골롬반회에서 일했습니다. 본당을 다니며 우리 선교활동을 교우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호주는 필리핀, 파키스탄, 한국, 남미 등등 선교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골롬반 선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동안 한국, 칠레, 페루, 호주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각자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은 달라도 하느님의 사랑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9월에 다시 칠레로 떠납니다. 골롬반회 선교사들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일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 덕분에 우리가 짊어진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제 선교 여정도 가난한 사람과 하느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껏 제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여정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께 의탁하며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신학생 시절 광주대교구에서 선교실습할 때 어린이들과 함께



칠레 북부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의 무덤을 찾아 축복하는 필자



진도에서 일어난 일

원요한(Sean Savage, 1922~1994) 신부

진도는 한국 남서쪽에 있는 많은 섬 중에서 제일 큰 섬이다. 요즘 가톨릭교회로 향하는 진도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 기쁜 소식의 중심에 두 사람, 안 토마스 신부와 한국인 청년 박 요셉이 있다.

박 요셉은 27살이며 진도의 신동마을(현재 진도군 군내면)에서 태어났다. 14살에 육지에 가서 중학교 교육을 받고, 졸업 후 경상도에 사는 삼촌에게 가서 살았다. 그곳에서 박요셉은 가톨릭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어, 1947년 7월에 세례를 받았다. 그해 성탄절에는 목포 산정동성당에서 안 바드리시오 몬시뇰에게 견진성사를 받았고, 대전에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1950년에 전쟁이 터지고 북한군이 내려오자 그는 진도로 피난 내려와야 했고, 몇 주 후에 한국군에 입대했다. 그런데 고향에 머문 그 짧은 시간 동안 박 요셉은 친구들에게 천주교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관심을 가진 친구들에게 교리를 가르쳤다.

1951년 초, 북한군이 후퇴했을 때, 박 요셉의 친척이 목포에 왔다. 그는 목포 산정동성당 주임이었던 안 토마스 신부에게 신동마을에 (아직 예비자는 아니지만) 교리를 공부하는 작은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즉시 안 신

부는 목포 신자들을 신동으로 보내어 예비자들을 돕게 했다. 같은 해 4월, 전쟁에 나갔던 박 요셉이 부상을 입고 장애를 얻은 채 목포로 돌아왔다. 안 토마스 신부는 박 요셉을 전교회장으로 고용하여 진도로 파견하였다.

두 달 뒤 안 토마스 신부가 신동에 갔을 때 20명은 세례받을 준비가 다 되었고, 몇 사람들이 예비자 교육

▼ 목포 산정동성당 주임신부 시절(1954년~1956년)의 원요한 신부





공소 미사를 드리는 안 토마스 신부(1950년대 중반, 전남 함평)

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박 요셉이 전교회장의 몫을 훌륭히 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능력을 확인한 안 신부는 새로운 요청을 하였다. 신동에서 멀리 떨어진 인지리(현재 진도군 지산면)에도 가서 활동하라는 부탁이었다. 인지리에는 구교우들이 있었는데, 태평양전쟁부터 1950년까지 사제가 들어가지 못했던 기간을 지나며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려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안 신부는 박 요셉이 겪을 어려움이 예상돼 많이 걱정했다. 박 요셉은 인지리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신앙의 불씨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그 마을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다. 다른 마을들은 가톨릭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안 신부가 진도 중심가에 숙소를 지어 교리교사들을 배치하고 활동하게 하면서 신자들이 계속 늘었다. 박 요셉은 신동 주변 12개 마

을마다 열성적인 청년 한두 명씩을 찾아냈다. 그리고 청년들은 박 요셉의 지도에 따라 이웃들에게 교리를 가르쳤다. 마을 사람들은 주일마다 한 집에 모여 기도하고, 목포에서 보내준 강론을 읽고 교리를 공부했다.

1953년 5월, 안 토마스 신부를 대신하여 내가 진도에 가게 되었다. 첫날 저녁, 신동 마을로 가는 길에 약 40~50명의 월가리(현재 진도군 군내면) 사람들을 만났다. 그 사람들은 내게 섬에 올 때마다 자기들의 집에 와서 미사를 집전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들 중에 한 자매가 유일한 신자였는데, 그는 월가리 사람들이 천주교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했고, 박 요셉은 정기적으로 월가리에 가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다. 지금 월가리에는 50명의 새 가족이 입교 준비를 마쳤다. ✝

예전에 전교회장이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의 기초였습니다. 박 요셉 형제처럼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친교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전교회장은 글을 배운 사람이었지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편지를 대신 써 주기도 했고, 그밖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믿을 수 있고 모범적이었기에 사람들은 전교회장을 잘 따랐습니다. 그들은 성당 안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온종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안 토마스 신부(1920~1976)는 아주 위대

한 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했지요. 공소도 많이 짓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참 겸손했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했던 사제였습니다.

이 글을 쓴 원요한 신부는 목포, 광주, 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를 한국에 도입한 분이지요. 신자들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다 챙겼던 그분을 신자들은 무척 사랑했습니다.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아버지’ 자체였어요. 권력이나 명예를 원하지 않았던 분, 위대하고 착한 선교사였습니다.

해설

민수왕 신부



그리운 정 레오 신부님

김일동 루카 후원회원

강원도 삼척 출신으로 성내동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어린 시절부터 골롬반회 선교사들과 함께했다. 삼척시장, 삼척 성요셉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 레오 신부의 젊은 시절

너무 가난한 나라 찌든 어린 시절, 청년이 되기까지 나는 감자와 강냉이, 콩치국, 천주교에서 주는 옥수수 죽으로 배를 채우며 자랐다. 초등학교 등굣길엔 길옆에 소주 무거리(소주를 만들고 남은 누룩)를 한 줌 훔쳐 주머니에 넣고 오가며 꺼내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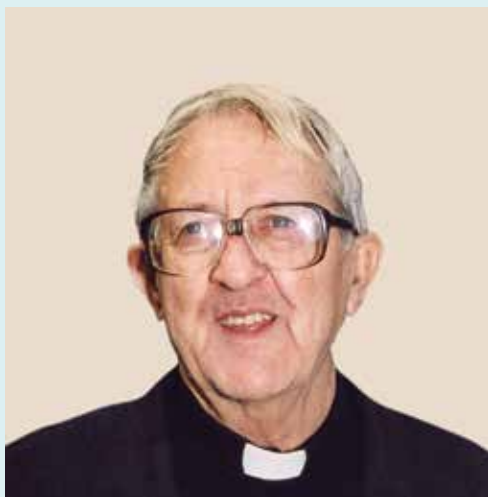
이런 나라 이런 마을, 낯설고 물선 이국만리 삼척에 골롬반 신부님이 오셨다. 갈 곳도 놀 곳도 없는 우리에게 따뜻한 성당 담벼락이 놀이터였다. 신부님께서 늘 주시는 예쁜 사탕, 초콜릿, 배구공, 야구공은 난생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게 좋아 성당에 다닌 것 같다.

중학교 2학년 때 루카로 영세했는데, 천주교 교리문답 100개를 못 외워서 성탄 때 못 받고 이듬해 1월 6일 삼왕내조(주님공현대축일) 때 강 디오니시오 신부님이 세례를 주셨다. 성당에 다녔기에 지금까지 헛길 가지 않고 살아왔음을 안다. 문폐도 한 평의 땅도 없이 무학무직의 흠아버지 밑에서 하느님이 붙잡아 주셨기에 잘 자랄 수 있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생 한 번은 가야 할 곳이 있다. 예수님의 일생이 담긴 성지순례다. 그러나 분망한 세월에 묶여 성지순례 그 거룩한 땅을 밟지 못했다. 늦게, 너무 늦게 허망의 짐을 내려놓으니 눈에 은인들이 보이고 은혜와 감사의 철이 들었다. 그제야 아내 테레사와 금년 가을에 성지순례를 계획하니 참으로 기쁘고 좋았다. 나의 성지순례는 고향 아일랜드로 가신 정 레오 신부님을 45년 만에 뵈러 가는 길. 그곳은 오 미카엘 신부님, 계 올리버 신부님 묘소, 다위 수녀님 묘소 그리고 몇몇 신부님, 수녀님이 계시는 곳, 내가 찾아야 할 은혜의 성지다.



정 레오 신부가 삼척 주민들에게 지어준 주택의 준공식 및 감사패 전달 모습(1965년 11월 13일) ※사진 제공: 김일동 루카



정 레오 신부

Lawrence Clarke

춘천교구 양양, 울진, 강릉 임당동, 원주교구 삼척 성내동, 학성동, 용소막(신림), 영월에서 본당사목을 하였다. 원주교구 설립과 발전에 헌신하였고, 총대리로서 지학순 주교와 함께 민주화와 인권옹호를 위하여 일하였다.

2019년 1월 30일 90세의 일기로 아일랜드에서 선종하였다. 아일랜드 달간파크 성 골롬반 묘지 안장.

그런데, 무슨 청천 날벼락인가. 꿈에도 잊지 못할 정 레오 신부님께서 세상 떠나신 소식을 골롬반 선교잡지를 보고 알았다. 눈물의 시간을 보내며 삼척 성내동성당에서 위령미사를 봉헌했다. 정 레오 신부님은 나의 결혼 주례 신부님이시고, 가난한 사람들 여섯 세대를 위하여 세 채의 집을 지어 주신 고마운 분이다.

내 인생의 전부는 신부님들의 기도와 말씀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다.

“주님, 정 레오 신부님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멘” ✠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골롬반 선교사와의 소중한 추억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좋은 글과 사진을 보내 주신 김일동 후원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원고 보내실 곳

이메일 kormagazine@columban.or.kr

우편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잡지편집실

문의 ☎ 02-927-2705



지역별 문의 방법

CMS 자동이체의 신청, 내용 변경, 주소 변경, 우편물 수신을 원치 않는 분은 해당 지역 후원회로 연락해 주세요.

- 홈페이지(www.columban.or.kr) 후원회 게시판
- 서울, 인천, 경기, 충청, 강원지역 **서울 후원회** ☎ 02-929-2977 | 팩스 : 02-929-1366
이메일 : korseoulfund@columban.or.kr
- 전라, 경상, 제주지역 **광주 후원회** ☎ 062-371-5823 | 팩스 : 062-371-5824
이메일 : korkwangjufund@columban.or.kr

미사 봉헌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회원은 **서울 후원회**(02-929-2977)로 연락해 주세요.

후원회 월례미사

2019년 6월 - 9월

	6월	7월	8월	9월	장 소	문 의
서울	7일	5일	2일	6일	돈암동 골롬반본부	02-929-2977
인천	11일	9일	-	10일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12일	10일	-	11일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14일	12일	9일	20일	원곡동 성당	031-491-2064
하안	27일	25일	22일	26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25일	23일	27일	24일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26일	24일	28일	25일	저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27일	25일	29일	26일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28일	26일	30일	27일	광주 골롬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13일	-	-	19일	용호동 성당	051-625-3382
제주	19일	17일	21일	18일	제주 골롬반 사제관	064-711-2471
	-	16일	-	17일	서귀 북자 성당	064-733-5523
	18일	-	20일	-	서귀포 성당	064-762-3444

- 서울 8월은 강의 없이 3시에 미사 봉헌
- 인천, 원주 8월 미사 없습니다.
- 부산, 안산 9월 미사는 추석 연휴로 변경되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및 CMS 출금이체 동의서

수납 기관명 : 재단법인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전화번호 : 02-929-2977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성명

세례명

교구 :

(

본당)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

기부금영수증(실기부자로만 발급됩니다)

☐ 국제청 홈택스 등록

☐ 우편 요청

☐ 영수증 거부

발급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록해주세요 (

-

)

선교 잡지 (3, 6, 9, 12월 발송) 수신

☐ 원함

☐ 거절

전달 사항

월정액

원

☐ 회비납입방법

☐ CMS 자동이체(은행 방문 없이 자동이체 가능)

☐ 기타 납입

☐ 온라인 송금 ☐ 지로

※ CMS 자동이체 신청 (아래 모든 항목 기재 및 정보제공에 동의 필수)

출금 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출금일

☐ 5

☐ 10

☐ 15

☐ 20

☐ 25

☐ 3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교육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후원 계좌

후원회원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십자가의 길과 파스카 성야 미사

4월 20일 골롬반선교센터에서 봉헌한 파스카 성야 미사에 신학생, 평신도선교사, 후원회원 등 많은 분이 함께하였습니다. 미사의 봉헌 예물은 강원도에서 일어난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하여 춘천교구에 전달되었습니다. 강원도 교동, 동명동 등은 골롬반회가 짓고 활동한 성당이며, 이곳 신자들 또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앞서 4월 5일에는 본부 정원에서 후원회원들과 십자가의 길을 바치며(사진),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갈 굴리엘모 신부 아흔 번째 생일

갈 굴리엘모 신부가 3월 13일 구순 생일을 맞았습니다. 1925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그는 1954년 사제품을 받고, 1955년 한국에 파견되어 광주대교구 함평, 화순, 해남, 영광, 영암, 영산포, 장흥 등에서 본당사목을 하면서 성당과 공소 여러 곳을 지었습니다. 현재 전남 장성군에서 공소 미사를 담당하며 한결같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갈 굴리엘모 신부는 한국에서 90살을 맞은 첫 골롬반 선교사입니다. “신부님,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평화사목 장학금 전달식

3월 8일, 서울 후원회 월례미사에서 평화사목국 남승원 신부(사진)는 북한이탈 후 한국에 정착한 청(소)년들에게 ‘평화사목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수도회가 운영하는 무연고 탈북 아동·청소년 그룹홈 ‘어울림섬’, ‘영원한도움의집’, ‘복자여명의집’, ‘곰사리공동체’ 그리고 올해 간호대에 입학한 학생 외 2명입니다.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실천인 ‘평화사목 장학금’은 탈북 학생들이 꿈을 펼치며 성장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임피제 맥글린치 신부 선종 1주기 미사

임피제 신부 선종 1주기 위령미사가 4월 23일 제주 성 이시돌 삼위일체대성당에서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의 주례로 김창렬 주교를 비롯한 사제, 수도자, 신자 등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봉헌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 임피제 신부는 1953년 한국에 파견되어, 가난으로 고통받던 제주도 사람들을 위하여 목축업을 일구고 자립을 돕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2018년 4월 23일 선종한 임피제 신부는 한평생을 바친 성 이시돌 목장 땅에 묻혔습니다.



민 디오니시오 신부, 전요한 신부 금경축



민 디오니시오 신부, 전요한 신부의 서품 50주년을 맞아 두 사제의 선교 여정에 함께해 왔던 분들이 금경축 미사를 직접 준비하여 봉헌하였습니다. 민 디오니시오 신부는 툿핑 포교 베네딕도 서울수녀원에서, 전요한 신부는 서울 반포성당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미사를 드리며, 50년의 한국 선교



생활을 돌아보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69년 부활절, 아일랜드에서 사제품을 받고 그해 한국으로 파견된 두 선교사는 여전히 바쁘게 그리고 기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부회의

5월 28~29일 2019년 한국지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골롬반회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요한 의제를 나누며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회의에는 작년에 선출된 골롬반회 총장 팀 멀로이 신부가

참석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지부에는 7개 나라 출신 사제, 평신도선교사들이 서울, 경기, 광주, 장성,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부를 방문한 대만 신자들

대만 신주교구의 티엔고 성당, 다관 성당 신자 10명이 지난 5월, 한국지부를 방문하였습니다. 골롬반회가 사목하는 원주민 지역 교우인 이들은 성지순례를 위하여 한국에 왔습니다. 대만에서 활동하는 배시현 평신도선교사와 문성윤 신학생이 인솔자로 함께 왔으며, 골롬반 평신도선교사 센터에 머물면서 해미, 절두산 등 성지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성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신 것에 감동하였다”고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후원회 야외미사

5월 10일(금), 후원회원과 선교사들이 함께 ‘후원회 야외미사’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를 맞아 웅인 천주교성직자모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한국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다섯 분의 골롬반회 선교사 고요한 신부, 나요한 신부, 모 몰티모어 신부, 서 로벨도 신부, 안성도 신부 그리고 지원사제로 칠레에서 활동했던 박은종 사도 요한 신부(서울대교구)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함께 미사와 연도를 바친 후,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돌아가신 사제들의 아름다웠던 삶을 기억하였습니다.



성소주일 행사

골롬반회는 5월 12일 성소주일을 맞아 서울가톨릭신학대학과 인천가톨릭신학대학에서 열린 성소주일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성소국, 평신도선교사 센터, 신학원이 함께 준비하여, 〈사진으로 본 골롬반회〉, 〈선교사로 가고 싶은 나라 지도에 스티커 붙이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신학교를 방문한 주일학교 어린이와 청소년, 교사, 학부모들이 우리 회 홍보 부스에 찾아와 선교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해외선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성근 제노비오 부제의 사제서품식에 초대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에 응답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고자 서약하는 복된 사제서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1요한 3,18)

사제서품식

일시 2019년 9월 21일(토), 오후 2시

장소 광주대교구 염주동성당

주례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

첫미사

일시 2019년 9월 22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광주대교구 장성성당

노 프란치스코 신부 선종



광주대교구, 원주교구, 제주교구에서
활동하였던 노 프란치스코(Francis
Royer) 신부가 5월 3일 저녁(현지 시
각) 고향 미국에서 선종하였습니다(향
년 87세).

“주님, 당신의 충실한 사제, 노 프란치
스코 신부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비추소서.”



출생 1931년 11월 5일, 미국 시카고
사제서품 1957년 12월 21일
한국도착 1958년 11월 20일
선종 2019년 5월 3일

1959년 광주대교구 목포 산정동을 시작으로 진
도, 목포 경동, 화순, 영산포, 일로, 장흥, 강진, 원주
교구 영월, 제주교구 한림에서 본당사목을 했습니
다. 1990년에 미국지부로 발령받은 후에는 한국순
교자성당, 선교 교육 담당 등을 맡았으며, 2015년
은퇴하기 전까지 12년 동안 병원사목을 했습니다.



골롬반 선교사 가족모임 후 서울 골롬반 본부 정원에서,
지난 5월 18일, 서울 골롬반선교센터에서 평신도선교사, 지원사제, 선교사제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와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사제 성소 모임

때 매월 첫째 일요일 9:30~14: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
(서울 동소문동)

문의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010-9937-0901
korvocation@columban.or.kr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때 매월 둘째 일요일 14:00~17:00

곳 골롬반평신도선교사 센터
(서울 동선동)

문의 노혜인 안나 선교사
02) 929-4841
clmkorea@gmail.com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일요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최유진 올리벳다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